

우리나라의 防衛産業 育成方向

金 永 轍

1. 防衛産業 育成實態와 問題點

가. 育成의 背景

우리나라 防衛産業은 60年代末 급변하는 국제 정세, 즉 美國의 對韓政策에서 「닉슨 독트린」, 軍援移管, 駐韓美地上軍의 점진적인 철수정책의 실시와 주변국가인 中共의 膨脹, 印支事態, 그리고 1·21 共匪事態 등 對內外 與件變化에 따라 防衛産業의 育성을 위한 艱難성때문에 自主國防과 지속적인 戰力增強이라는 國家的 戰略目標에 부응하기 위하여 政府主導下에 추진된 것이 防衛産業의 始源이라 하겠다.

이와같은 防衛産業育成의 직접적인 추진동기가 外勢에 의한 國家保衛라는 측면에서 강조되어 獨立國家로서의 自主, 自立, 繁榮을 具現하는 측면에서 출발하였으며 推進段階別로 구분하면 基盤造成段階(70年代초~중반)에서 基盤完成段階(70年代 중반~80年代초), 그리고 發展段階(80年代초 이후)로 育성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育성과정에서 防衛産業은 政府主導下에 國民의 聲援과 企業人의 國家的 事명감으로 自主國防態勢의 早期 目標達成을 이룩하게 되었다.

나. 支援實態

防衛産業의 출발은 産業構造와 工業水準이 미약한 基盤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防衛産業基盤을 확충하는데는 막대한 內外資의 調達投入이 불가피하였다. 그러나 政府主導에 의한 적극적인 支援體制와 育成計劃이 마련되어 防衛産業의 특

수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企業은 國家的인 事명감을 갖고 참여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상태하에서 그간 政府의 防衛産業支援實態를 살펴 보면 防産保護育成政策實施에 따라 防産特措法을 제정하여 契約制度側面에서는 長期契約, 概算契約, 隨意契約과 先給金 및 着·中途金등 防衛産業에 대한 계약의 특례와 國民投資基金, 防衛産業支援金融 및 育成基金, 補助金(현재 중단)등 資金支援面에서도 많은 혜택을 주었다.

또한 法人所得稅에 대한 租稅減免(현재 特別減價償却), 附加價値稅의 零稅率適用, 國有財産의 양도 및 대여의 稅制支援과 기타 兵役特例, 獎勵金支給등 政府의 防産育成 支援政策은 최대한 강구되었다.

다. 支援成果와 問題點

以上과 같이 우리나라 防衛産業은 그간 政府의 적극적인 防産育成政策에 힘입어 支援成果面에서 볼때 70年代 말에는 基本兵器의 量産體制構築과 高度精密兵器의 개발생산단계에 이르렀고, 지속적인 연구개발의 토대아래서 基盤이 構築되어 國家保衛로서의 國防力強化의 直接效果 이외에도 政治, 經濟, 外交에도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한편, 重化學工業의 技術蓄積을 가속화시키는 단계까지 성장하여 國際化時代로의 國民主體性を 제고케 되었고 雇傭 및 國際收支寄與面에서도 刮目할만한 많은 성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防衛産業의 育성은 民間企業의 資本金이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施設投資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그간 國內外景氣의 不況 및 軍需要의 制約등으로 財務構造는 날로 악화되고 元利金償還

負擔에 따른 자금압박과 民需産業基盤의 미정착화로 經營基盤은 상당히 어려운 局面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 防衛産業은 출발당초 複數生産體制에 따른 重複投資와 生産시설의 활용부진에 따른 稼動率 低位, 防産調達制度의 硬直化, 그리고 持續的인 研究開發體制의 未定着化의 經營 障路가 있었다. 未定着등으로 인한 經營隘路는 더욱 심화되어 왔다.

2. 防衛産業 育成方向과 展望

가. 戰略經營에 의한 自律的인 經營基盤構築

防衛産業은 需給構造上 限界性으로 業界側 입장에서 需要創出에 대한 어려움을 항상 갖게 된다. 또한 軍 技術의 진보와 武器體系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設備投資 및 持續的인 연구개발이 뒤따라야 하며 自主國防과 産業發展側面에서 防衛産業은 끊임없이 발전되어야 함은 宿命的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防衛産業發展을 위해서 政府는 中·長期的인 眼目에 입각하여 80年代를 향한 育成戰略을 수립하고 官·民이 共同努力을 통해서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아야 하며 防産業界는 스스로가 政府依存에서 탈피하여 戰略經營에 의한 經營基盤을 構築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稼動率 提高를 위한 需要創出을 위해서 마케팅活動의 積極化와 戰略産業에 대한 競爭力을 強化하여야 한다.

需要創出을 위한 마케팅活動은 國內需要의 廉價競爭에서 벗어나 國外 마케팅活動에 눈을 돌려야 하며 이는 海外需要의 高級多樣化에 적합한 製品의 개발 및 품질향상을 기하여 輸出價格의 競爭性을 제고하는 한편 輸出의 확대 多邊化를 추진하기 위한 企業의 協同的 協力이 전개되어야 한다.

또한 防衛産業界는 國際化時代로의 활로를 개척하기 위하여 防産業體 및 輸出業體의 협력강화와 國際系列企業으로서 수출에 주력하여야 하며 政府는 營業活動의 積極化가 될수 있도록 과감한 支援政策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需要創出을 위한 戰略産業의 경쟁력 강화는 企

業體質改善과 企業의 經營合理化 및 技術革新으로 원가절감에 의한 國際的 劣勢를 지양할 수 있도록 生産性을 제고하여야 하며 특히 比較劣位 品目에 대하여는 企業의 積極적인 노력으로 不利한 價格 및 品質競爭力을 개선할 수 있도록 戰略的인 지원대책이 講究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政府는 장기적인 戰略增強計劃의 발전과 國家次元에서 戰力開發을 위한 독자적인 武器體系를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므로서 內需物量의 확보와 製品의 優越性으로 인한 지속적인 需要創出을 積極化하는 한편 企業은 民需 製品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품질향상으로 國際競爭力을 강화시켜 稼動率 提高를 위한 需要創出에 주력해야만 할 것이다.

둘째, 戰略經營의 基盤構築을 위해서는 企業의 獨創性 體制 및 장기적인 經營合理化 努力을 경주하여야 한다.

企業의 獨創性 體制構築에 있어서는 內需需要의 한계로 인한 制約性에서 불려 高度化된 生産체제로 전환하고 축적된 技術과 生産施設을 토대로 國際化時代로의 활동을 개척하여 未來 指向的인 國際的 成長企業으로서의 生産기반을 構築하여야 할 것이다.

長期的 革新을 위한 經營基盤構築은 內部 環境與件의 변화와 外部 環境에 대하여 製品技術의 개발과 技術融合에 의한 새로운 技術의 創出으로 수요를 創出함으로써 經營與件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활동자세로 장기적인 計劃生産體制를 구축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戰略經營의 기반구축은 國家的 位置와 經濟的 寄與效果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각오로서 임하여야 하며 防産經營人으로서의 姿勢를 확립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政府依存에서 벗어나 무리한 施設投資를 지양하고 財務構造를 개선하여야 하며 減量 經營戰略으로서의 企業內部에서 흡수할 수 있는 經營損失을 최대한으로 合理化, 改善, 發展시키는데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나. 政府支援 育成方向

防衛産業育成을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防産經營人 스스로가 자율적인 經營基盤을 개선하려고 하는 인식과 각오로서 姿勢를 확립하여야 한다.

政府는 國民總和團結의 原動力이 될수 있는 自主國防의 차원에서 政府意志에 부응할 수 있도록 企業人에 대한 士氣昂揚 및 使命感을 고취시켜야 하며 연구개발분야의 지원확대와 生産側面에서의 防産施設活用 極大化, 그리고 防産調達制度 側面에서 中점 지원체제를 강화, 育成支援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첫째, 研究開發分野의 지원체제는 基本兵器의 성능개발과 高度戰略兵器의 개발 및 國產化率을 높이는 쪽으로 확대되어 나가야 할것이다.

研究開發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研究與件이나 環境改善을 통하여 源泉의인 해결대책이 模索되고 추진되어야 하는데 大學教育에 있어서 敎課中 國防科學技術과의 연계분야 新設 檢討 및 官民研究機關의 國防研究開發 참여를 조성해서 적극활용해야 한다. 또한 防産業體의 技術者 育成을 위한 海外派遣研修支援를 추진하고 民間企業에서의 研究開發에 대한 資金 및 稅制支援策을 더욱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國防研究開發에서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國防科學技術情報의 획득 및 관리인데 美國의 경우 科學技術情報事業의 개선책으로서 이 分野의 기능을 管掌하는 部署를 OSD(Office of Secretary of Defense)에 設置한바 있으며, DDC(Defense Documentation Center)를 포함한 國防省의 모든 科學技術情報機構를 검토하여 關聯訓令이 改正되었다.

그리고 利用이 많은 國防研究開發 데이터 베이스(Data Base)를 검토하여 각종 科學技術情報를 협조하는 國防省 諮問委員會를 설립, 情報機能에 기여하게 하였으며, 그밖에 NTI(National Technical Information) 및 SIE(Smithsonian Information Exchange)등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는 실태에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앞으로 技術情報의 신속한 獲得支援은 물론이고, 연구개발의 進展에 따르는 광범위한 技術情報의 축적을 效率的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이 講究되어 研究開發能力을 제고시켜야 할것이다.

또한 模倣開發生産體制를 지양하고 獨自의 武器의 개발생산을 위한 未來 指向的인 研究開發 生産體制로 전환할 수 있도록 重點支援하는 育成政策으로 개선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生産側面에서의 防産施設 活用極大化는 기존시설의 效率的인 활용으로 保有施設 및 生産工程의 특성에 따라 國家的 産業發展 側面에서 民需品開發 및 輸出에 활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生産체제를 專門化·系列化 業體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全體 防産施設의 效率性을 期해야 한다.

防産施設의 활용은 가능한 追加施設投資는 억제하고 基本兵器의 生産은 기존시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國家的 次元에서 投資效率를 제고시키고 輸入代替效果 및 國產化率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이는 生産構造上 防産專用 Line의 基本工程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民需制品과 製造技術 類似品目으로 工作機械類, 自動車 部品등을 開發하여야 하며, 防産技術에 의한 民需品 개발시 金融支援의 제도화가 고려되어야 한다.

防産生産體制의 專門化·系列化는 既造成된 防産基盤을 재정비하여 政府의 防産支援策의 效率的인 수행과 企業의 經營개선을 유도 내지 促進시키므로써 遊休施設을 최소화하고 專門 生産施設의 系列化로 시설이용의 高度化를 가져와야 할 것이다.

셋째, 防産調達制度의 效率化는 調達制度의 經營合理化가 우선적으로 先行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調達價格은 適正價格을 유지하고 契約事務의 원활화와 適正豫算編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會計制度에 있어서는 會計資料의 신뢰성 유지와 과학적인 原價計算制度가 발전되고 調達管理는 原價計算電算化 및 情報體制確立으로 效率的인 집행을 위한 管理制度가 개선되어야 한다. 즉, 原價計算制度發展의 한 例로서 현재 防産物資로 조달되는 品目中 개발품목을 제외하고는 量產品目(3年~5年 이상)에 대하여는 原價計算制度의 발전이 있어야 한다. 이는 直接 原價의 材料原價單位와 直接勞務工數의 定着化(표준화)로 物價變動에 의한 單가변동만을 감안하여 適用算定토록 하여야 하며, 諸比率(間接加工費率, 一般管理費率, 利益率)에 있어서도 일정

時點에서 標準率을 정착화시켜 操業率, 稼動率)에 따른 諸比率을 적용할 수 있도록 制度를 발전시켜 이를 통한 原價計算의 복잡성 및 필요인력의 所要를 최소화하고 適正豫算編成 및 豫算節約등 調達管理의 効率化를 期하여야 한다.

다. 앞으로의 展望

우리나라의 防衛産業은 비교적 短期間에 급속한 成長을 할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4次에 걸친 經濟開發計劃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工業基盤이 확대된데다가 自主國防을 확립하기 위한 강렬한 國民의 성원에 힘입어 발전되어 왔으며, 앞으로 5次經濟開發計劃期間中 國際情勢의 변화와 南北間의 軍備競爭이 계속되는 한 北傀를 능가하고 國際的 水準의 단계까지 성장되어야 할 것이다.

그간 우리나라 防衛産業은 70年代에 들어와서 美國의 對韓軍援政策의 변화로 有償援助에 의한 調達比重이 커졌으나 동시에 國內調達이 확대되어 이미 第4次計劃期間中 防衛産業은 重化學工業과 병행해서 加速化 발전하여 國家發展에 크게 기여했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防衛産業基盤은 아직 外國의 技術導入에 의존하고 있는 分野가 상당히 있는 실정이고 보면 重化學工業發展에 가일층 노력이 필요하며 産業構造의 고숙화에 따른 지식과 技術集約의 産業의 도입 및 정밀산업의 확대를 기반으로 防衛産業의 質的, 成長努力에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한 政策課題라 하겠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防衛産業은 앞으로도 先進工業國과의 國際協力을 통해 高度兵器 및 장비의 技術을 습득하고 蓄積하여 라이선스 導入依存에서 점차 탈피하여 自立開發에 의한 國產化의 幅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며,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高度産業構造의 經濟的 自立위에 國際的으로 高度兵器 生産國으로 등장할 潜在力과 그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企業과 政府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3. 結 論

오늘날 國際情勢는 政治的 經濟的 諸分野에서 실질적으로 國益에 相充되고 있고 한편으로는 理念가 體制가 상이하여 相互冷戰對立을 초래하고 있으며 여러 地域에서 실제적으로 熱戰이 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狀況에서 國家의 安全을 보장하고 平和를 유지하는 것은 國家經濟的인 차원에서도 防衛産業育成은 國民과 國家의 주요 목표이며 當面課題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目標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持續的인 연구개발의 확대와 技術蓄積으로 國家安全保障의 物的 토대가 되는 防衛産業育成에 최대의 노력을 가일층 경주해야 할 것이다.

現在 우리나라 防衛産業은 기반조성이 一定水準으로 구축된 단계에 있고 이를 效率的으로 誘導하여 본격적으로 先進隊列의 防衛産業國家로 발전시켜야 할 時期에 있다고 할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까지 構築한 基盤을 헛되이 하지말고 實効性있고 종합적인 育成計劃을 수립함으로써 防衛産業發展目標을 달성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 國家産業發展 및 國際的 變化側面에서 제반 문제점을 토대로 再整備 重點支援 育成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사료된다.

한편, 成熟된 개발단계로의 進入과 더 나아가서는 高度精密兵器 生産까지 요구되는 현시점에서 防衛産業界가 성장할 수 있도록 國家的 次元에서 낙후된 制度를 과감히 改善해서 목표달성을 極大化 할수 있는 장기적인 綜合目標計劃을 수립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참 고 문 헌

1. 防衛産業體의 經營分析(84. 10)
2. 韓國의 防衛産業育成에 관한 研究(研究報告書)
3. 80年代의 防衛産業세미나(防衛産業振興會)